

물(水)의 풍수론적 시각에서 본 전통마을의
입지와 공간구성의 해석에 관한 연구
- 하회 · 양동마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Spatial Composition and Location of
Traditional Village from the Water of Feng-Shui Theory
- in the case of villages of Hawei and Yangdong -

이 응 희*
Lhee, Eung Hee

Abstract

This study, from conditions connected with water in Feng-Shui theory, is to find out their influence of the location and spatial composition of the studied villages, Hawei and Yangdong, and then to offer the result as basic data for the study of the traditional village in the future. The study method is to analyze topography by the map and present state of villages studied, to interpret them on the base of location, spatial composition, and chi, and then to analyze the relevancy of Feng-Shui theory of them.

The result of the study are to be following:

Houses of Hawei village are situated on the inside of a winding stream of waterway, while those of Yang dong village are located on the outside of a winding stream of waterway. In case of Hawei village, showed the close interrelation between the distribution of present houses and running speed of waterway by positin. Judging from the location, orientation and surroundings of mountains and waterway, topographical composition of Hawei village is Duk su guk, but that of Yang dong village is Juang feng guk. Comparing with Yang dong and Hawei in location and spatial composition, the conditions of waterway as being locational factor, for example, the geomancy of situation, orientation, and phisical phenomena(lenth, width, and depth of waterway in front of village) of waterway, are more importantly considered in Hawei village being situated on even land than in Yang dong located at the foot of the mountain.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 전통마을은 그 입지와 공간구성에 있어 자연환경의 역할이 유독 강조되어, 자연조건이외의 요인은 거의 무시될 정도로 이미 주어진 자연환경 중에서 선택되어 왔다. 특히 농경사회에서 마을을 결정하는데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물이다. 물은 사람의 거주생활과 생업인 농업에 다같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의 대량운반과 저장이 곤란했던

전통사회에서는 물을 가까이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지역만이 주거지로서 적합했을 것이다. 이렇게 마을의 성립시 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로 나타나는 것이 풍수사상이다. 물은 먼저 풍수 지리에서 혈(명당)을 형성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마을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택의 위치 및 좌향 등의 공간구성에도 중요하게 여겨 왔다.

그러나 건축분야에서 전통마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전통마을의 입지 및 공간구성에 관한 영향 관계를 물의 유무나 위치관계만을 풍수론적 입장에서 다루고 있어, 깊이있는 특수적 이론의 연구가 간과되어 왔고, 그 적용에 있어서도 상이한 지형을 대상으로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가 없었다.

*정회원, 대구공업대 건축과 조교수, 공학박사
이 논문은 1997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상이한 지형을 가진 전통마을의 입지선정과 공간구성에 대해 지형에 따른 풍수적 得水 이론의 영향관계를 비교론적 측면에서 해석하고자 하며, 또한 그 결과를 추후 관련 연구에 기본 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풍수지리설의 관찰대상요소인 산, 물, 방위 중 물로 한정하고, 연구대상지역은 안동의 하회마을과 월성의 양동마을¹⁾로 하였다. 이 두 지역의 선정은 전통마을로 지정²⁾되어 있어서 보존상태가 양호할 뿐 만 아니라, 지형상에서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본 비교연구의 대상으로서 기준에 부합되어 연구목적의 효과적 달성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을 통해 풍수지리상 득수이론에 관련된 규범을 마을입지와 공간구성의 토대 위에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 풍수지리 규범에 적합하며 지형적 조건에서 차이를 보이는 두 개의 마을을 선정한다.

지형도상의 분석과 현장확인을 통해 나타난 마을의 지형에, 득수 이론을 적용하여 각 지형과의 영향관계를 비교론적 측면에서 밝힌다.

II. 물의 風水論

1. 입지적 조건

풍수지리상 물과 관련된 마을의 입지적 조건으로 山水環抱, 山水逆勢, 水破長生, 得水, 水口關鎖, 合水와 內·外水流逆勢의 水勢, 물의 장단, 심천, 대소, 정동, 청탁 등으로 구성되는 물의 성질 및 물의 得破方位를 중심으로 한 水法으로 구분된다. 특히 물의 성질 중 정동과 청탁은 논외로 하고, 물 흐름의 장단, 대소 및 심천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山水環抱

산수환포는 산수의 관계로 물이 穴場이 있는 용맥을 향해 등골게 감싸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물을 일컬어 활과 같다하여 弓形 또는 황제가 허리에 두르고 있는 옥대를 상기시킨다고 해서 腰帶水라

칭하기도 하고³⁾, 오행의 관점에서 보면 金城水에 해당된다.

여기서 대상이 되는 물은 외수가 되며 수세에 관한 것으로, 그 형태는 氣를 알아내는 단서가 되어 입지와 관련을 갖는다.

2) 山水逆勢

산수역세는 혈장을 이루는 來龍의 맥세와 혈장을 지나는 수류의 勢가逆하는 경우로서 득수법에서는 역을 중요조건⁴⁾의 하나로 친다⁵⁾.

여기서 물은 위치적으로 외수가 기준이 되며, 방법은 龍勢와 수류의 흐르는 방향과의 관계를 통해서 역세여부를 가리게 되는데, 혈을 중심으로 용세가 左旋局(右旋局)일 때, 수류가 좌향(우향)에서 우향(좌향)으로 흐르면 山水同居가 되고, 수류가 우향(좌향)에서 좌향(우향)으로 흐르면 역세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3) 水破長生

수파장생은 수파가 장생방위에 드는 것으로 혈을 포함한 명당 주변 산들의 산정과 수구가 후천팔괘 방위상으로 180°의 일직선상에 있는 것을 말하는 데⁶⁾, 이것은 명당터를 번쩍들어 破方으로 쏟아 붓는 듯한 환경지각적 양태를 띠 수 있기 때문에⁷⁾, 풍수적으로 금기시하는 조건이다. 여기서 물을 외수를 기준으로 정하며 방법은 혈을 정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나침반을 놓고 산정의 방위와 수구의 위치를 찾아 장생여부를 살피게 되는데, 여기서 산정과 수구가 8괘 방위상 兌方은 震方, 乾方은 巽方, 坎方은 離方, 艮方은 坤方에 있게 되면 수파장생 방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4) 水口關鎖

수구는 상당수에서 진기를 뿜아버린 찌꺼기인 破水가 나가는 곳이며, 그 위치는 혈에서 바라본 수류가 시야에서 끝나는 곳인 종건처로 청룡과 백호가 끝나는 부분을 경계점으로 보며, 수구를 이루는 용은 청룡이나 백호에 관계없이 반드시 역수를 해야하고, 물이 나가는 곳이나 물 출구는 반드시 彎環屈曲⁸⁾ 하여야, 흘러 나가는 쪽이 보이지 않게 되어 鎖를 형성하게 된다. 수구의 단합은 생기형성과 관련되어 입지선정시 살펴보아야 할 고려 조건이다.

5) 得水

득수는 지세에서 처음 물이 보이기 시작한 위치를 말한다. 내룡의 좌선, 또는 우선에 따라서 득수 지점이 결정된다. 내룡이 우선일 경우에는 청룡쪽에 득수가 있어야 명당을 이루고, 내룡이 좌선을 이룰 경우에는 백호쪽에 득수가 있어야 명당이 이루어진다⁸⁾. 여기서 득수는 외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산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6) 內·外水流逆勢

明堂水인 내수와 客水인 외수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합류하는 내·외수류역세의 조건을 풍수에서는吉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지형적 조건은 내수와 외수가 동일방향일 경우 물흐름이 겹쳐 수량이 증대되고, 유속도 빨라 하천이 범람되어 마을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하게 고려되고, 여기서 역세판별은 내수가 외수에 합류시 이루는 각도에 의해 구분되는데, 외수의 득수부분(좌 혹은 우)에서 예각을 이루면 동일방향이 되고, 둔각을 이루면 역이 된다.⁹⁾

7) 合水

합수란 물이 합쳐진다는 뜻으로, 내수와 내수와

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며, 물이 합쳐지면서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풍수적으로吉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합수의 위치도 정면에서 합수를 해야 음양수가 합하여 혈장 주위의 지세가 균형을 얻을 수¹⁰⁾ 있기 때문에, 측방 및 두부침식에 의한 택지손상을 막을 수 있어 명당의 형성에 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 得破의 방위

정혈함에 있어 수류의 방위가 중요한데, 이러한 수류는 반드시 길한 방위로 부터 흘러 들어와 흉한 방위로 나가야 하는데, 그 방향은 동쪽(주로 동북)에서 서쪽(주로 서남)으로 흐르는 것을 좋은 것으로 친다.¹¹⁾

9) 물의 장단, 대소, 심천

물의 장단, 대소, 심천은 물의 물리적 성질에 속하는 것으로 외수가 그 기준이 된다. 물의 장단에서 보면, 그 흐름의 길이가 긴 것일수록 龍氣가 왕성¹²⁾하고, 강은 광대할수록 地氣를 담아 키우는 작용도 중후하다. 따라서 큰 강은 두터운 기를 담고 있다. 물의 양도 깊이가 깊은 것이 좋고, 간혹 깊이가 얇아서 강의 바닥이 나타나는 형상은 좋지 않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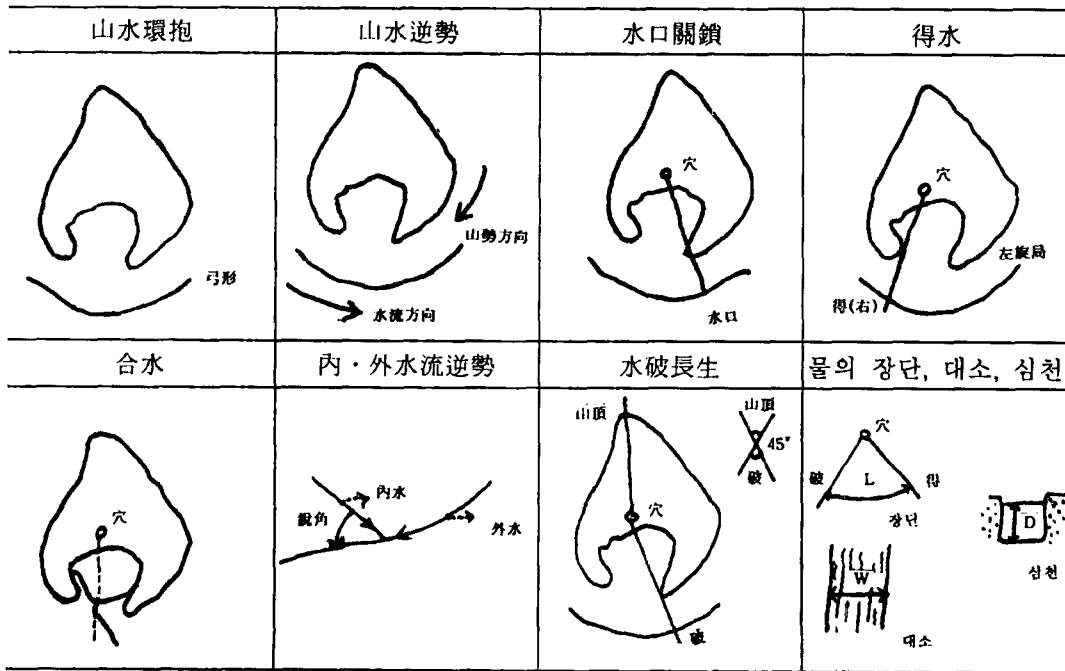


그림 1. 得水論의 입지조건인 圖解.

해석하는데, 지리대전에서는 물이 깊은 곳에는 백성이 많이 살고 부유하다¹³⁾ 하여, 깊게 흐르는 물이 있는 땅을 양기의 대표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상에서 물의 풍수적 이론은 땅의 진위와 경중을 식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입지선정의 조건이 되며, 그 대상이 되는 물은 산 또는 물과의 관계, 혹은 물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며, 그 위치에 따라 내수와 외수로 구분되고, 형세적인 것, 방위적인 것 및 물리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공간구성적 조건

지형적 요인은 풍수론과 관련되어 산과 물의 형태에 따른 위치, 背山臨水, 局, 形局 등의 공간개념으로 나타나고, 취락의 공간구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 범위를 물의 풍수론과 관련하여 수류의 형태에 따른 위치, 배산임수와 득수국의 공간개념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1) 수류의 형태에 따른 위치적 해석

물은 그 흐르는 상태에 따라 각 지점의 풍수적 해석은 구별¹⁴⁾된다. 그 이론적 근거는水流의 형태에 따라서 유속의 완급과 情의 有無가 다르기 때문에, 이로인해 기가 모이는 위치와 기가 빼앗기는 지점으로 구분되는 까닭이다. 물의 흐름이 곡선적인 형태에서 그 내부는 구심력에 의해 물의 흐름이 완만하고, 물이 감싸주고 있어 有情한 지세가 되며, 그 바깥쪽은 원심력으로 물의 흐름이 급하며 등돌린 위치가 되어 無情한 위치가 된다. 곡선의 내부도 굽이가 완곡한 부분이 굽이가 급한 부분보다 길한 것으로 보는데, 이는 굽이가 급한 부분의 위치는 직선형과 같이 물흐름이 빨라 기가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류를 보면 혈의 유무와 위치를 알 수 있는데, 혈 형성은 곡류의 물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위치는 물이 모이거나 穴場을 싸안는 곳이 어디냐(왼쪽, 오른쪽 또는 중앙)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리고 물이 들어오는 得부분은 사람의 입으로, 물이 나가는 破부분은 흥문으로 비유되어, 각각 물이 들어오는 부분은 見處로, 破부분은 不見處라 하여, 주택의 향 선정시 고려되는 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보면, 수류의 형태에 따라 혈의 유무와 위치, 그리고 각 지점의 위치적 해석은 기의 집산과 관련되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2) 배산임수와 득수국

배산임수는 산과 하천에 의해 전개되는 지형조건으로 명당의 간결한 표현이다. 여기서 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물의 위치와 고저, 방위 그리고 물의 상대요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될 수 있다. 배산임수 조건상 이상적인 물의 위치는 전면에 위치하면서 낮은 곳과 남쪽에 있어야 하고, 그 반대편에는 산이 있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풍수에서는 산과 물의 勢가 멈추는 곳을 局이라 하는데, 물과 관련하여 穴 형성이 이루어지는 곳을 득수국이라 한다. 여기서 득수는 길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합수가 안되는 물, 반궁형의 물, 직선으로 뻗어 나가는 물은 득수의 하천이 될 수 없다. 반면 용호 중 하나 혹은 둘다 缺하는 경우 물로 대신할 수 있는데, 이때 내용을 잘 포용하고 있다면 생기의 저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득수가 된다. 이런 경우는 바람의 영향이 중시되지 않는 평지에서 나타나는 현상¹⁵⁾으로, 물의 중요성과 수세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혈장이 3면의 산으로 호위되어 있어도 그 앞쪽에 안산이나 朝山이 없이 큰 강이나, 호수를 마주보고 있는 局勢도 氣의 聚止라는 측면에서 역시 득수국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면 배산임수의 공간적 성격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물을 보면 기가 멈추고, 강한 바람을 받으면 기가 사라지는 기의 성질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득수국의 조건은 물의 존재와 더불어 그 수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지형과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마을의 입지와 공간구성의 분석

1. 마을의 지형적 분석

하회마을은 풍산 유씨의 동족부락으로, 지형은 남으로 하천과 연하여 영양 일월산의 지맥인 남산이

있고, 서쪽으로는 화천 넘어서 일월산의 지맥인 원지산이 있다. 동쪽으로는 태백산의 줄기를 타고 영양 일월산의 한 지맥인 해발 271m의 화산이 있는데, 이 산의 지맥은 기슭에서 지세가 상당히 약화되어, 들을 이룰 정도로 기울기가 아주 완만하고 마을에 이르러 지맥도 평평하게 흩어지다 마을 중앙이 손바닥을 엮어 놓은 듯 표고 85m를 중심으로 물이 돌아나가는 부분으로 약간씩 낮게 경사져 있어 거의 평지에 가깝다. 주택은 75-50m 사이에 배치되고, 中心 部分에 大家家인 양진당을 비롯한 몇몇 대표적 주택이 들어서 있고, 주변부에서는 타성의 상류주택과 그 주변에는 상인계급의 초가가 자리하고 있어 전체의 영역은 동심원적 또는 계급적으로 분할되어 진다.

하회마을의 앞을 궁형으로 감싸며 흐르는 화천은 낙동강 3개 본류, 15개 지류 중 황지쪽에서 흘러 내리는 가장 큰 본류로 실제 마을과 접한 길이는 4km 정도이고 폭이 약 200-300m¹⁶⁾, 수심은 2-5m¹⁷⁾이며, 수류방향을 보면 북동쪽에서 흘러 들어와 서쪽과 남쪽, 북쪽을 흘러 마을을 완전히 감싸고 흐른 다음 다시 방향을 바꾸어 서남쪽으로 흐르고¹⁸⁾ 있다.

양동은 여강 이씨와 월성 손씨가 같이 살고 있는 동족부락으로, 지형적으로 보면 북서쪽에 위치하는 설창산(95m)으로 부터 우측으로 용맥이 흘러내려 겨울철의 북서풍을 막아주고 있고, 설창산에서 좌측으로 북동과 남쪽으로 용맥이 흘러 마을 앞을 감싸고 있다. 주택은 10~70m 사이에 배치되고, 표고

45-50m에 위치한 손씨 대종가(송창)가 제일 높은 곳의 주거이며¹⁹⁾, 제일 낮은 표고 10m의 평지에는 논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의 조건은 안골과 물봉골 계곡에서 흘러 내리는 시내는 마을안 북동쪽 설창산의 좌측 용맥허리에서 흘러 나온 양동천에 합쳐진다. 그리고 양동천은 마을 앞을 반궁형으로 등지며 흐른다. 마을과 접한 길이는 1km, 그 폭은 약 3m²⁰⁾이고, 수심은 75cm에서 130cm이며, 수류방향은 동쪽에서 흘러 들어와 남쪽으로 흘러 나가고 있다.

이상에서 보면 하회마을은 평지에 입지한 마을로서 우선국에 해당하고, 하회마을의 물은 외수에 해당된다. 양동마을은 산지에 해당되며, 산세는 좌선국으로 물의 조건은 안골내와 물봉골내의 내수와 양동천의 외수로 구분된다.

2. 마을의 입지적 분석

앞서 언급한 득수 이론의 입지적 조건을 두 마을의 지형에 적용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득수법상 산수환포의 조건에서 보면, 하회마을에서 화천의 위치는 혈처의 앞이 되고 흐름형태가 궁형이 되어 조건에 부합하나, 양동마을은 양동천이 혈처 앞에 위치하나 反弓形이 되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산수역세에서 보면, 하회마을의 경우 화천의 흐름이 左向에서 右向으로 흘러 나가고, 산세는 우선국으로 右向에서 左向이 되므로 산수역세가 된다. 양동마을은 양동천이 그 대상이 되며, 그 흐름은 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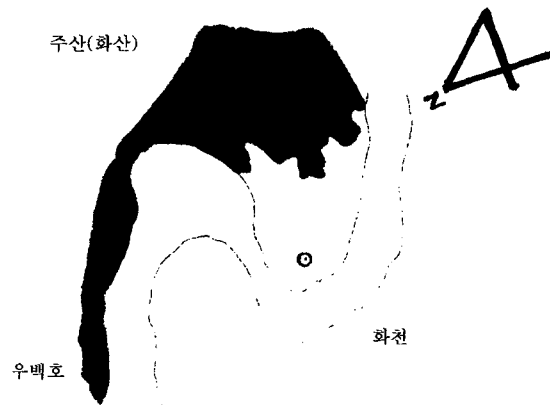


그림 2. 하회마을의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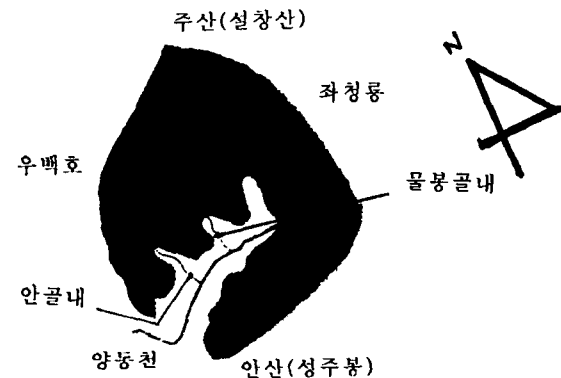


그림 3. 양동마을의 지형.

向에서 右向으로 左旋局인 산세와 동일방향이 되어 이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다.

수파장생은 하회마을의 경우 화산의 山頂이 震방 위에서 오고 水口가 艮방위에 있는 경우로서, 八卦方位上 일치선상에 있지 않다. 즉, 수파장생에 해당 되지 않는다. 반면 양동마을은 혈에서 본 설창산의 山頂이 坎방위로 수구 위치인 離와는 180°의 일치 선상에 있어 수파장생에 해당된다.

수구관쇄를 보면, 하회마을의 화천의 수구는 화천의 흐름이 좌향에서 우향이 되므로 우백호가 끝나는 지점이 된다. 이러한 우백호의 형세는 주산쪽에서 앞쪽으로 직선형이 되어 감싸주지 못하나, 마

을에서 볼 때 물의 흐름이 만환굴곡을 이루어 수구 부분을 닫아주는 역할을 해 주며, 또한 수구 부분에 만송정 숲으로 불리는 송림(이것을 풍수에서는 비보라고 한다)이 있어 물이 빠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관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양동마을의 경우는 물 흐름이 좌향에서 우향이 되므로, 외백호가 끝나는 마을 입구 부분이 수구가 된다. 여기서 외백호는 주산쪽에서 앞으로 직선형이고, 물 흐름은 右에서 左로 직선형이 되므로, 역수를 이루지 못하며 따라서 수구부분은 관쇄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득수를 보면 하회마을의 경우 脈勢는 우백호가

산수환포		산수역세	
하회마을 : ○	양동마을 : ×	하회마을 : ○	양동마을 : ×
수파장생		수구관쇄	
하회마을 : ×	양동마을 : ○	하회마을 : ○	양동마을 : ×
득수		내·외수류역세	
하회마을 : ○	양동마을 : ×	양동마을 : △	양동마을 : ×

* 조건과 일치하면 ○, 일치하지 않으면 ×, 그 중간인 경우는 △로 표시

그림 4.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의 수세분석 비교.

긴 우선국에 속하는데, 득수는 그 반대편인 좌측에 있어 득수론적 명당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양동마을의 경우 좌선국에 해당하는데, 마을 전면의 양동천은 외수로서 득수의 위치가 좌청룡쪽에 있어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외수류의 역세를 보면, 양동마을의 경우 내수인 안골내와 물봉골내, 외수인 양동천의 관계로 내수인 물봉골내가 양동천에 합류시 이루는 각도가 직각에 가까운 예각이 되어, 내·외수류역세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안골내는 합류시 직각을 이루므로 둔각에 해당하나 위치가 예각과의 접점으로 볼 수 있어 완전한 역세형세를 취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하회마을의 경우는 내수가 없어 해당되지 않는다.

합수의 경우 양동마을은 내수에 해당하는 좌청룡쪽인 안골에서 흘러내리는 안골내와 우백호인 물봉골에서 내려오는 물봉골내가 거의 평행을 이루어 합수를 이루지 못하는데 이것은 풍수적으로 음양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회마을의 경우는 내수가 없는 경우이다.

수류의 득과방위를 중심으로, 하회의 물의 흐름을 살펴보면 북동쪽에서 흘러 들어와 서쪽과 남쪽, 북쪽을 흘러 마을을 완전히 감싸고 흐른 다음 다시 방향을 바꾸어 서남쪽으로 흘러 나가고 있어, 풍수적으로 수류의 들어오(得 방위) 나가는 방위(破 방위)의 조건을 만족시켜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동마을의 물의 방위는 동쪽에서 흘러와, 남쪽으로 흘러가므로, 들어오고 나감의 방위가吉방위가 되어, 破 방위의 조건은 일치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물의 물리적 성질에서 보면 하회마을의 화천은 실제 마을과 접한 길이는 4km 정도이며, 양동마을의 양동천은 1km이며, 강 폭은 하회마을의 화천은 비우기 50~100m, 우기 200~300m 이고, 양동마을의 양동천은 그 폭이 약 3m로, 길이와 폭에서 하회마을이 양동마을보다 우세하다. 수심은 하회마을의 화천은 2~5m의 수심을 가지고 있으나 양동마을의 양동천은 75cm 에서 130cm로 하회마을에 비해 수심이 얕다.

이상 수세와 수법, 물의 물리적 성질(물의 장단, 대소 및 심천)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 하회마을

이 양동마을에 비해 물의 풍수론적 입지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마을의 공간구성 분석

1) 물의 형태에 따른 취락의 구성

하회마을의 경우 취락의 구성을 보면 마을 전체가 곡류의 안쪽에 위치하고, A에서 C로 내려 올수록 가옥의 분포가 많아지고 위치적으로는 강변에 접근하여 분포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작지는 그 범위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고, 곡류부분인 C부분에는 경작지가 없다. 그러나 C에서 B로 올라 갈수록 가옥의 분포가 적어지고 강변에서 멀어지는 경향을 보고 있다. 반면 경작지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A, B부분에 가까울수록 굽이가 급하기 때문에 물살이 빨라 기가 빠르게 달아 나는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C(C1, C2, C3)부분이 기가 모이는 부분이라는 것과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다.

양동마을의 경우 양동천을 경계로 위쪽의 북촌과 아래 쪽의 남촌으로 경계지워 지는데, 북촌은 궁형인 양동천의 곡류 바깥쪽이 되고, 남촌은 곡류 안쪽이 된다. 북촌은 중심이 되는 마을(주산을 배산하고 있는)로 대부분의, 그리고 대표적 가옥이 배치되고 있어 풍수적으로 물의 조건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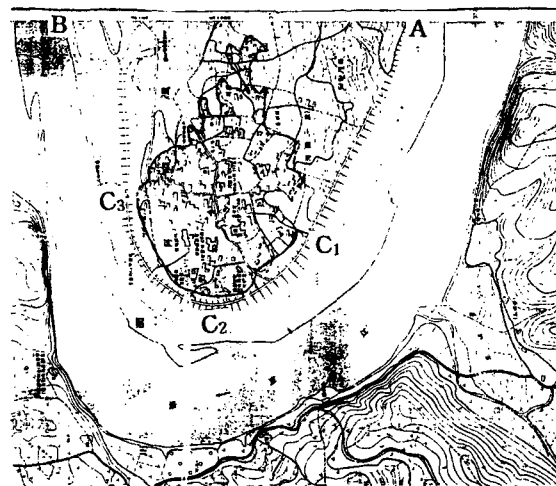


그림 5. 수류형태와 하회마을의 주거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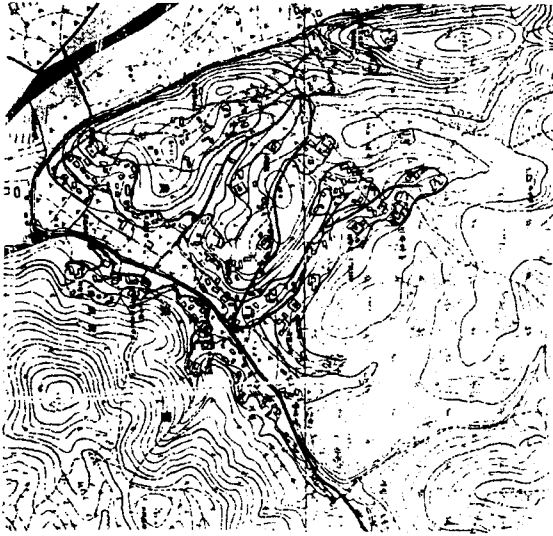


그림 6. 수류형태와 양동마을의 주거분포.

그리고 종가는 마을의 穴에 해당되는데, 양동마을의 경우 안골의 松 숲이 손씨의 대종가인데, 그 위치는 물의 조건상으로 보면, 반궁형인 양동천의 바깥쪽이 되어, 양동마을에서는 물이 혈 형성과 위치 결정에 영향요소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회마을의 경우, 유씨의 대종가인 양진당(삼신당)을 혈로 보는데, 이 곳은 화천의 곡류 안쪽(그림 4의 C₂)에 위치하면서 곡류의 내부 중 가장 물의 흐름이 완만한 곡류 중심에 있다. 이는 풍수적 물의 조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그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63년에 조사한 김택규의 보고에 의하면 하회마을의 향은 남향집이 33.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북향집이 25.9%, 동향집이 21.8%, 서향집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동북향과 동남향이 제각기 3.0%와 2.4%를 차지하고 서남향과 서북향이 각각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²¹⁾.

하회마을의 수의 득 방위는 艮(북동)이고, 수구방위는 坤방위로 서남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볼 때 혈에서 수류를 조망할 수 있는 가능한 향은 8방위를 기준으로, 82.6%가 여기에 해당되며, 특히 물의 방위상 흉방위에 해당되는 수구쪽 서남방위는 1.2%로 거의 미미함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주택이 물을 중심으로 향을 취하고 있으며 破부분으로 향을 기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필 외는 양동마을 주택 전체 162호의 분석대상 주택의 좌향을 337.5°~22.5°(북, 5가옥), 22.5°~67.5°(북동, 6가옥), 67.5°~112.5°(동, 12가옥), 112.5°~157.5°(남동, 36가옥), 157.5°~202.5°(남, 45가옥), 202.5°~247.5°(남서, 38가옥), 247.5°~292.5°(서, 6가옥), 292.5°~337.5°(북서, 14가옥)으로 분석하고 있다.²²⁾

그리고 양동마을의 물의 得 방위는 震방위로 동쪽에 해당하고, 破방위는 離방위로 남쪽에 해당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흉방위인 남쪽에 가장 많은 주택이 향을 취하고 있고, 吉 방위인 물의 得 방위에는 많지 않다. 이는 양동마을 주택의 향을 선택할 때 득수법상 물의 得破가 向 결정에 고려되는 영향요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보면 하회마을의 경우 수류형태가 주택 분포와 혈 형성 및 위치, 향 선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양동마을은 이러한 조건들이 고려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배산임수와 득수국

배산임수는 공간구성에서 볼 때 풍수 이론의 기본이 되는데, 두 마을을 비교해 보면 하회마을은 뒤쪽 주산인 화산은 앞에 들을 두고 있으며, 마을이 뒤로 하고 있는 것은 산이 완만하게 내려 앉은 평야형에 가까운 지형이다. 방위적으로도 화산이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특별한 배산이 없는 경우이다. 그러나 마을 앞으로는 화천이 임하고 있어 임수의 역할을 한다.

양동마을의 경우 북쪽 뒤쪽으로 설창산이 있고, 아래로는 남쪽 앞에 양동천이 흘러 배산임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풍수지리에 입각한 공간구성을 전체적 국면을 통해 살펴보면, 하회마을의 경우 뒤쪽에 주산으로 화산이 있고, 그 화산의 지맥이 우백호를 형성하지만, 좌청룡은 산이 缺하여, 화천이 대신하고, 마을의 전면과 좌우쪽은 화천을 연하여 마주보고 있는 국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주산인 화산은 마을(혈, 명당)에서 멀리 떨어져 위치하여 있는데 비해, 화천은 폭이 200~300m로 규모가 크며, 마을과 연하고 있고, 형태는 궁형으로 마을 전면과 좌·우면을 감싸고 있어, 주산에서 흘러나와 마을을 지나는 기는 三面의 물에 의해 氣가 가장 왕성하게 머무르

는 곳이 된다. 이렇게 볼 때 水勢가 山勢에 비해 그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혈과 명당은 물에 의한 局 형성이 주가 되는 得水局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양동마을의 경우 양동천은 폭이 3m의 작은 규모의 하천으로, 형태는 반곡류형을 취하고 있어 혈(명당)형성의 요소로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배산임수를 취하면서도 양동천이 마을 成局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보면 양동마을은 산의 구성(주산, 좌청룡, 우백호, 안산)이 마을을 감싸, 혈 형성의 주요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하회마을은 물의 흐름형태와 위치에 의해 혈의 위치가 결정되어 나타나는 득수국임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물의 풍수이론을 통한 마을의 입지와 공간구성의 연구에 있어 방법의 구체적 적용을 통해 지형적 특성에 따른 그 영향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양동 마을은 중심마을인 북촌인 경우 산록에 입지한 산지형 마을이고, 하회마을은 평지형에 가까운 마을의 입지를 나타내고 있다.

물의 풍수이론 중 水勢와 水法, 그리고 물의 물리적 이론을 통해 살펴본 결과 월성 양동 마을 입지는 수세와 수법에 근거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반면, 하회마을에서는 이 두 이론에 의해 입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리적 측면에서도 물의 대소, 심천, 장단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 하회마을이 월성 양동마을보다 수치의 비교론적 측면에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공간구성상 주택의 배치적 측면에서 보면 하회마을의 경우, 마을 주택 전부가 물의 곡류 안쪽에 위치하고, 곡류 안쪽 중심부의 중앙에 혈에 해당하는 마을의 종가와 중심주택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물의 유속이 빠른 부분보다 유속이 느린 부분으로 갈수록 주택의 분포가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양동 마을은 凶한 위치인 양동천의 곡류의 바깥 쪽에 위치하고 그 양동천을

따라서는 논이 배치되고 그 위쪽으로 갈수록 상류 주택과 혈에 해당하는 종가가 위치하고 있어 주택의 배치적 특성상 물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산임수와 득수국의 측면에서 보면, 양동 마을의 경우 산수의 위치, 방위 환포성에서 배산임수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나, 하회마을은 산의 경우 위치적으로나 방위 및 환포성에서 볼 때 배산의 의미는 약하다고 볼 것이다. 득수국에서 보면 하회마을의 수류가 환포성이나 물의 물리적 측면, 산이 缺한 부분을 물이 대신하고 있는 등 득수국의 조건에 합치되나 양동천은 수세와 물의 물리적 측면에서 마을의 공간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볼 때 득수국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장풍국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보면 산지형인 양동마을은 입지와 공간구성에서 물의 풍수론적 조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데 반해, 평지인 하회 마을의 경우 적극적 관련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마을의 풍수적 연구에서는 지형적 특성에 따른 풍수적 방법의 대상요소 적용의 관련성을 밝힐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결과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상 마을을 중심으로 폭 넓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될 것이다.

주

- 1)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에 관한 대표적 조사와 연구로는 경상북도의 하회마을 조사보고서(1979)와 양동마을 조사보고서(1979), 이종필 외의 영남지방 고유취락의 공간구조(영남대학교 출판부, 1983), 임재해의 하회마을의 자연경관과 풍수지리의 이해(안동문화연구 6집, 안동문화연구회), 조민철의 한국 전통마을 주택의 좌향특성에 관한 연구(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88), 박준성의 물(水)이 전통마을과 건축의 좌향에 미친 영향(국민대 석사학위논문, 1987), 이재환의 양동·하회마을의 음양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89), 현중영·박찬용의 조선시대 전통주택

풍수의 좌향 - 양동마을에 관한 사례 연구(한국 정원학회지 16권 3호, 1998. 10), 현중영 · 박찬용의 풍수지리의 시각적 구조의 과학적 분석과 해석(한국조경학회지 25권 1호, 1997. 4)을 들 수 있다.

- 2) 월성양동마을은 중요민속자료 189호로, 그리고 하회마을은 중요민속자료 122호로 1984년에 지정되어 있는 마을이다.
- 3) 유문동, 명당풍수천명술, 문춘, 1996, p. 88.
- 4) 이용희, 성주 한개마을 입지의 풍수적 해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4권 8호, 1998, p. 150.
- 5) 이용희, p. 152.
- 6) 권선정, 취락입지에 대한 풍수적 해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p. 64.
- 7) 송석오, 명당, 신아출판사, 1998, p. 389.
- 8) 박시익, 풍수지리와 건축, 경향신문사, 1997, p. 119.
- 9) 이용희, p. 151.
- 10) 권선정, pp. 66-67.
- 11) 윤흥기, 풍수지리설의 본질과 기원 및 자연관, 한국사시민강좌 14집, 일조각, 1994, p. 19.
- 12) 최길성 역, 조선의 풍수, 민음사, 1990.
- 13) 최길성 역, p. 81.
- 14) 박시익, 풍수지리설 발생배경에 관한 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p. 221.
- 15) 유문동, pp. 101 - 103.
- 16) 경상북도, 경북 북부지역의 전통문화, 1988, p. 321.
- 17) 경상북도, 하회마을 조사보고서, 1979, p. 10.
- 18) 박준성, 물(水)이 전통마을과 건축의 좌향에 미친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p. 52.
- 19) 최진영, 조선시대 양동마을의 배치구조 해석,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p. 37.
- 20) 강동진, 경주 양동마을의 보전방법론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p. 115.
- 21) 김택규, 동족부락의 생활구조 연구, 청구대학교

출판부, 1964, p.30.

- 22) 이종필 외(영남지방 고유취락의 공간구조, 영남대 출판부, 1983, p. 216)에서 주택의 좌향을 16방위로 분석한 것을 8방위로 다시 정리한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택규, 동족부락의 생활구조연구, 청구대출판부, 1964
2. 박시익, 풍수지리와 건축, 경향신문사, 1997.
3. 송석오, 명당, 신아출판사, 1998.
4. 유문동, 명당풍수천명술, 문춘, 1996.
5. 이종필 외, 영남지방 고유취락의 공간구조, 영남대출판부, 1983.
6. 최길성 역, 조선의 풍수, 민음사, 1990.
7.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88.
8. 경상북도, 하회마을 조사보고서, 1979.
9. 경상북도, 양동마을 조사보고서, 1979.
10. 경상북도, 경북 북부지역의 전통문화, 1988
11. 강동진, 경주양동마을의 해석과 보전방법론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12. 권선정, 취락입지에 대한 풍수적 해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13. 박재용, 풍수지리설의 사상적 배경과 도시형성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9.
14. 박준성, 물(水)이 전통마을과 건축의 좌향에 미친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15. 윤흥기, 풍수지리설의 본질과 기원 및 자연관, 한국사시민강좌 14집, 일조각, 1994.
16. 이용희, 성주 한개마을 입지의 풍수적 해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4권 8호, 1998. 8.
17. 임재해, 하회마을의 자연경관과 풍수지리의 이해, 안동문화연구 6집, 1992.
18. 조민철, 한국전통마을 주택의 좌향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19. 조성국, 풍수지리설이 전통정원과 도시입지선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20. 최진영, 조선시대 양동마을의 배치구조 해석,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接受 : 1999. 4. 9)